

가 가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작. 배삼식

화전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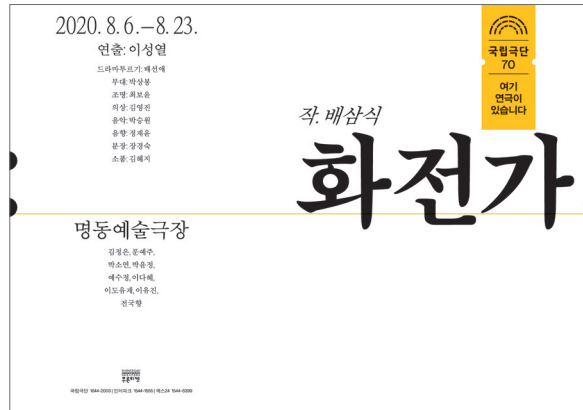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국립극단 화전가

작 배삼식
연출 이성열

본공연은 2020년 국립극단 창단 70주년을 기념하여
(재)국립극단 제작으로 2020년 8월 6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작가의 글	2
연출가 인터뷰	삶을 지탱하는 작고 빛나는 것들을 위하여 ■ 남궁경 4
줄거리	8
출연진	9
작품 이해답기—1	하찮고 사소한, 그럼에도 곳곳하게 버텨온 이들에 대한 헌사 ■ 배선애 14
작품 이해답기—2	그 시절 안동, 고난을 버티는 여인들 ■ 이지양 17
작품 이해답기—3	〈화전가〉 작품 속 인물들 20
작품 이해답기—4	작품 속 용어, 안동사투리 해설 22
무대디자인스케치	24
의상디자인스케치	26
연습 스케치	28
스태프 프로필	30
만드는 사람들	31



배삼식

1998년 〈하얀 동그라미 이야기〉로 데뷔한 이래 창작극과 번안극, 연극과 창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극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주목받는 극작가이다. 2007년 〈열하일기만보〉로 대산문학상·동아연극상을, 2008년 〈거트루드〉로 김상열연극상을, 2009년 〈하얀 앵두〉로 동아연극상을, 2015년 〈먼 데서 오는 여자〉로 차범석희곡상을 수상했다. 〈하얀 앵두〉〈3월의 눈〉 등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억을 통해 먹먹한 감동을 전하는 작품에서부터 〈벽 속의 요정〉〈먼 데서 오는 여자〉와 같이 개인의 역사와 시대의 역사를 오묘하게 결합시키며 진실을 드러내는 작품, 마당놀이와 같이 한국적 해학을 아우르는 작품 까지 그의 작업은 늘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어느 저녁에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말들을 저는 대부분 알아 듣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이제 곁에 없고 그 저녁의 풍경과 목소리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무엇을 쓸까 궁리하며 이리저리 헤맸습니다만, 모르는 사이에 결국 저는 그 저녁으로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들으려고요.

초고를 마치고 오래 묵은 나무들을 보러 가서 겨울가지 아래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세계는 충만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흘러보낸 목소리들이 허공에 떠돕니다. 그것을 더듬는 것은 늘 때늦은 일입니다만.

백 살 먹은 나무는 아흔아홉 해의 죽음 위에 한 해의 삶을 살포시 얹어놓고 있습니다. 얇은 피막같은 그 삶도 지금은 동면 중입니다만. 나무는 또 잎을 내밀고 꽃을 피우겠지요. 지나간 죽음들을 가득 끌어안고 서서. 올해의 잎과 꽃들이 작년 그것은 아니겠지만. 마음은 다시 온다고, ‘봄이 돌아온다’고 속삭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늘 안타깝고, 오직 이 안타까움만이 영영 돌고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2020년 겨울

배삼식

주요작품

연극 <3월의 눈> <먼 데서 오는 여자> <하얀 앵두> <은세계> <거트 루드> <열하일기만보> <최승희> <은세계> <벽속의 요정> <오랑캐 여자 웅녀> <11월> <하얀 동그라미 이야기> <1945>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 <춘향이 온다> <쾌걸 박씨> <마포황부자> <삼국지>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외
오페라 <1945>

수상내역

2015 제8회 차범석희곡상 <먼 데서 오는 여자>
2011 제5회 더 뮤지컬 어워즈 작사작곡상 <피맛골 연가>
2009 제46회 동아연극상 희곡상 <하얀 앵두>
2008 제10회 김상열연극상
2007 제44회 동아연극상 희곡상, 제15회 대산문학상 희곡부문 <열하일기만보>

삶을 지탱하는 작고 빛나는 것들을 위하여

이성열 국립극단 예술감독 인터뷰

※ 본 인터뷰는 2020년 2월 28일
초연을 앞두고 진행되었으나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공연이
예정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2월 28일 초연을 염두에 두
고 쓰여 8월 6일 초연과 맞지 않은 부분
이 있음을 밝힙니다.

진행·정리 남궁경_자유기고가



이성열

現 국립극단 예술감독.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한
섬세한 연출력을 바탕으로 밀도 높은 무대를
구축해왔다. 1996년 실험연극 공동체를
표방하는 극단 백수광부를 창단하여
대표이자 상임연출로 활동해왔으며,
2017년 11월 재단법인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다. 동시대 사회 현실과 연극의 접점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주요작품

〈오슬로〉 〈에어콘 없는 방〉 〈햄릿아비〉
〈즐거운 복희〉 〈바나야저씨〉 〈과부들〉 〈봄날〉
〈여행〉 〈그린벤치〉 〈키스〉 〈굿모닝? 체홉〉
〈야메의사〉 〈햄버거에 대한 명상〉 외 다수

〈화전가〉는 국립극단 70주년을 기념하는 레퍼토리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지요. 특
별히 이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정하신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으로서, 그리고 이 작품의 기획자이자 연출가로서 다른 무엇
보다도 창작극을 키우고 관객들이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자 의무라
고 할 수 있어요. 올해 국립극단 7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작품이 그 모든 레퍼토리의 출발점입니다. 해외의 좋은 작품들을 새롭게
보여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작극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전가〉의 시간적 배경이 6.25전쟁을 목전에 둔 1950년 4월인데, 올해
는 6.25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요. 공교롭게도 70주년을 맞
이한 국립극단도 4월 29일이 생일이예요. 배삼식 작가가 의도한 것인지 우연의 일치

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립극단이 생긴 바로 그 시대의, 비극적인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을 그린 작품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시대의 굵직한 사건들을 드러내어 보여준 작품들도 있지만, 특히 이 작품은 그 시대의 배면에 숨어있는 그림자 같은 인물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반추하는 의미를 갖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6.25가 일어나기 직전의 봄으로, 가족들의 대화를 통해 과거사가 드러나는 동시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정보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큰딸 금실이 남편 만나러 북으로 가면 그렇게 이산가족이 될 것이라고 알 수 있지요.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잔잔한 현재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의 비극 사이에 놓인 잠깐의 평화인 것이잖아요. 현재가 평화로울수록 보는 이의 감정은 더 슬퍼지는 역설적인 평화인 셈인데 이것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 궁금합니다.

▶▶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늙은 어머니의 환갑을 맞이하고, 세 딸과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준비하지요. 즐겁게 회갑연을 준비하고 있지만 관객들은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부재하는 집안 남자들의 불안하고 불행한 상황을 알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불안함 등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달 뒤의 전쟁에서 모두 죽었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살아남았어도 좌익 집안이기에 때문에 이후에도 고품게 살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지요. 말하자면 태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막상 무대 위에서는 전 부치고, 설탕 먹고, 초콜릿 먹고, 예쁜 옷도 입고, 행복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으니 자칫 관객들이 작품 배면의 아픔이나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할 것에 대한 노파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재된 불안이 무대 위에서 기호화 되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논의하다가, 집안 자체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의해 서서히 점령되어 가는 것을 ‘물이 차오르는 것’을 통해 보여주기로 했어요. 여기서 물은 불안과 불행의 물질적인 형태이죠. 꼭 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은 안개일 수도 있고, 어둠일 수도 있고요. 인물들은 밝게 웃고 떠들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기운이 차올라서 그들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듯이, 그런 느낌을 시각화해서 제시할 생각이예요.

역사적 배경을 제하고도 이 여인들이 누리는 찰나의 평화가 갖는 보편성이 무척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주는 상실감과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미래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현실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역사에 덜 민감한 관객들에게는 바로 그런 인생의 보편성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기도 해요.

▶▶ 배삼식 작가가 작품을 설명하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씨의 심리에 대한 것인데, 뭔가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전에 아름다웠던 한 순간을 재현해 보고 싶은 욕망으로 ‘화전놀이’를 제

안하는 것이라고요. 화전놀이를 했던 과거는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평화롭던 시절이에요. 그걸 회갑연 대신 하자고 제안하는 심리 안에는 앞으로 이 순간이 없을 지도 모른다는 한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관객들도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대한 회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비극의 한가운데서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을 회구하는 것은 항상 즐거운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이 풍비박산나서 난파선 같이 되어버린 집에서 아름다웠던 시절을 되뇌는 것이 현실감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인간은 그런 것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작품은 사라져가는,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되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에는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오마주가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화전놀이 자체가 그런 것이고, 화전이라는 것, 여인들의 한복, 그 중에서도 납닥생명이 같은 귀한 안동포에 대한 것, 여성들만의 소통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작가가 다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단어를 포함한 안동지방의 방언으로 쓰인 대사의 언어 역시 그 안에 포함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헌들을 참고해 당시 안동지역의 구어, 지방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우들의 입을 통해 기록으로 묻혀버린 옛 언어가 다시 ‘구어’로서의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 배우들에게 사투리를 지도하는 분의 고향이 안동인데, 그분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대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배삼식 작가의 처의 외할머니가 안동분이신데, 그분에게 직접 전해들은 기억을 갖고 쓴 것이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시대에 쓰던 단어들이었지요. 연극은 소통이 가장 중요한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옛 말을 고집한 것은, 지금은 사라지고 잊혀 가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는 작가의 의도 안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과연 이 생경한 언어가 관객에게 잘 전달이 될지에 대해 고민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한국인이려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상도 사투리를 익히 접해왔기 때문에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작품의 시작과 끝에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암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중요한 지점마다 ‘영시’가 등장하는데 그 의미가 궁금해지더군요.

▶ 극에 봉아가 읊는 셰익스피어와 T.S.엘리엇의 영시 두 개가 나오는데, 봉아가 영문과를 다닌다는 설정이 있어서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시작과 끝이라는 중요한 장면을 왜 영시로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시의 내용이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네트에 “시간이 앗아간 그 모든 것을, 나 여기 다시 새기네, 그대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주제이지요. 언어도 그렇고, 납닥생명도 그렇고, 그리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시절이 앗아간 사람들이지요. 그 모든 것을 작품을 통해 다시 새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지 않은 길이의 작품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대략 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의 흐름이 섬세하게 쪼개져서 묘사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이 세밀한 시간의 흐름이 무대 위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 시간으로 따지면 낮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30시간 정도 되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크게 보면 낮과 밤과 황혼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밤이 중요하지요. 밤에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마치 체홉의 〈벚꽃동산〉이나 〈세자매〉에서도 밤에 속마음이 다 드러나듯이, 일상적인 로고스의 세계인 낮 시간과는 달리 밤은 카오스의 시간이에요. 새벽 세 시에 가까운 시간에 인물들이 감추고 있던 마음 속 깊은 곳의 얘기가 다 나오고, 갈등이 드러나게 돼요. 다음날 해가 밝은 후에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과 같을 수는 없죠. 밤을 기준으로 하루 전과 하루 후는 같은 날의 반복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져요. 전체적으로는 흐르는 시간 내내 사소한 에피소드로 일관되는 것 같지만 큰 흐름으로는 밤을 사이에 두고 앞과 뒤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른바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때문에 밤을 기준으로 앞과 뒤의 무게, 질감이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작품이 국립극단이 꾸준히 발표해온 레퍼토리인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에 대한 현 시대 연극의 응답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근현대극에서 많이 다루어진 시대가 배경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작품을 통해 시도되는 잊혀 가는 언어, 문화에 대한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 〈화전가〉는 근래 연극계의 트렌드와는 다른, 색다른 작품인 것 같아요. 요즘은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여성주의적 시각, 성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런 범주 내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작품도 남자 없이 여자들만 나오는 작품이라서 여성 서사 중심, 여성이 주체가 되는 작품일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탈정치화 되어 있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앞서 말한 트렌드와는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 시각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는데, 인간의 삶에서 거대한 이념이나 주의, 주장, 행동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예요.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이념이나 사상에 있을 수도 있지만, 고생하다가 마시는 차디찬 냉수 한 잔이라든가 땀 흘리고 산에 올라 정상에서 맞는 서늘한 바람이라든가, 작품에 나오는 달디단 설탕물 같은, 이런 작은 것들 또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로 치자면 거시적인 역사가 아닌 미시사(微視史, 즉 일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요맘때 봄, 차려입고 나가가 꽃도 보고 노래도 하는 거다.
일 년에 딱 하루. 화전놀이.”

산수유에 개나리에 산중 꽃들은 각기 제 빛깔을 내기 바쁘는데, 어쩐지 쓸쓸하기만 한 한 집안. 이 집에는 환갑을 하루 앞둔 ‘김씨’가 있다. 흩어져있던 가족들이 김씨의 환갑을 맞아 하나 둘 고향으로 돌아오고, 어느새 집안은 이들의 대화로 온기를 띤다. 세 딸과 두 며느리, 고모님과 집안일을 봐주는 할매, 그리고 그가 거둬 키운 홍다리댁까지. 아홉 여자가 모여 북적거리는 저녁, 아득히 울려오는 종소리를 듣던 김씨는 돌연 성대한 잔치 대신 화전놀이를 가자고 제안하는데...

From forsythias to cornelian cherry flowers, various wild plants are busy showing off their beautiful colors, but Mrs. Kim's household remains forlorn. The day before her sixtieth birthday, other family members arrive one by one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soon the house comes alive with the sound of their voices. That evening, Mrs. Kim hears bells ringing in the distant and suggests that they go on a spring picnic instead of throwing a lavish banquet: "Let us dress up and go on a picnic. We'll see flowers in bloom and sing together. Just one day of the year reserved for enjoying hwajeon."



출연진



예수정 Ye Su-jung

김씨 Mrs. Kim

연극

〈양상블〉 19 | 이자벨라 | 산울림 소극장
 〈엘렉트라〉 18 | 코러스 | LG아트센터
 〈세일즈맨의 죽음〉 17 | 린다 로먼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하나코〉 17 | 한분이 | 대학로 공간 아울
 〈과부들〉 14 | 소피아 푸엔테스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몰리 스위니〉 12 | 몰리 | 미마지 아트센터 눈빛극장
 〈바다와 양산〉 07 | 김정숙 | 설치극장 정미소
 〈그린 벤치〉 05 | 타이코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외

전국향 Jeon Kuk-hyang

고모 Mrs. Kwon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 19 | 어머니 외 | 명동예술극장
 〈울구〉 19 | 노파 | 대학로 아름다운극장
 〈단편소설집〉 19 | 루스 스타이너 | 대학로 SH아트홀
 〈인형의 집, Part2〉 19 | 앤 마리 | LG아트센터
 〈이카이노의 눈〉 19 | 큰어머니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신의 아그네스〉 18 | 원장수녀 | 동양예술극장 2관
 〈애도하는 사람〉 18 | 사카츠키 준코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여도〉 18 | 정희왕후 | 한전아트센터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7 | 명자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수상

2019 서울연극제 연기상
 2017 서울연극인대상 연기상
 2016 임흥식배우상
 2016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 최우수연기상
 2015 2인극페스티벌 연기상
 2010 서울연극제 연기상



문예주 Moon Ye-joo

금실이 Geumsil

연극

〈보이 겿츠 길〉 17 | 테레사 | 동송아트센터 소극장
 〈맘모스 해동〉 16 | 부인 | 동송아트센터 소극장
 〈칼리콜라〉 14 | 케레아 | 학전블루소극장
 〈수인의 몸 이야기〉 14 | 수인 | 정미소 소극장
 〈당통의 죽음〉 13 | 칠리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부활〉 13 | 마담 마리에트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난 집에 있었지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12 | 장녀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꿈속의 꿈〉 11 | 보희 | 남산예술센터
 〈키친〉 11 | 데프니 | 명동예술극장
 〈오늘 손님 오신다〉 09 | 손님 | 남산예술센터
 〈서른두 살, 원혜〉 06 | 원혜 | 연우소극장

외



이유진 Lee Yoo-jin

박실이 Baksil

연극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할머니〉 19 | 멀티 | 알과핵 소극장
 〈나팔봉〉 19 | 유소령부인 외 | 동양예술극장 3관
 〈가족연극〉 19 | 미정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취버영감의 소집영장〉 18 | 데츠 상사 | 후암스테이지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18 | 약방녀 외 | 남산예술센터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18 | 사촌형수 | 동양예술극장 3관
 〈내일은 내일에게〉 18 | 마농, 엄마 | 대학로 파랑씨어터
 〈자수하는 도둑〉 17 | 부인 | 반월아트홀 소극장
 〈꽃과 건달과 피자와 사자〉 17 | 검은여자 | 밀양연극촌 스튜디오
 〈들개의 기억〉 17 | 여바 | 혜화동1번지

외

수상

2019 신춘문에 단막극전 우수 연기상



이다혜 Lee Da-hye

봉아 Bong-a

연극

〈노부인의 방문〉 19 | 어린 클레어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뽕나무벌 이야기〉 19 | 월이 | 남산예술센터

〈자본〉 19 | 다혜 | 연우소극장

〈록앤롤〉 18 | 엘리스 | 명동예술극장

〈소예츠-한반도의 하얀 태양〉 17 | 강영미 | 남산예술센터

〈언더스터디〉 16 | 어린 분장사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안녕 앙코르〉 15 | 소년 외 | 아트원씨어터 3관

외





이도유재 Lee Do-yu-jae

장림댁 Ms. Jangrim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19 | 엄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최후만찬〉 19 | 엄마 | 스튜디오 76극장
 〈중립국〉 18 | 총무 |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시대는 서커스의 꼬끼리를 타고〉 17 | 진 할로우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거울 속의 은하수〉 14 | 요시코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위대한 유산〉 14 | 제마 | 명동예술극장
 〈창신동〉 13 | 현주 | 정보소극장
 〈인어도시〉 10 | 인어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모래여자〉 06 | 모래여자 | 중앙예술극장 2관
 외

박윤정 Park Yoon-jung

영주댁 Ms. Yeongju

연극

〈비명자들1〉 19 | 보현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최서림, 아화순레기행전〉 18 | 귀희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벚꽃동산〉 17 | 바라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떠도는 땅〉 16 | 미세스 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엘렉트라 파티〉 14 | 엘렉트라 | 소극장 판
 〈엔론〉 14 | 클로디아 로우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칼집속에 아버지〉 13 | 초희 | 백성희장민호극장
 〈사라지다〉 12 | 신정 | 남산예술센터
 〈과부들〉 12 | 세실리아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안티고네〉 10 | 안티고네 | 선돌극장
 외

수상

2011 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 김정은 Kim Jung-eun

독골할매 Grandma Dokgol

연극

〈1945〉 17 | 박선녀 | 명동예술극장
 〈메디아〉 17 | 유모 | 명동예술극장
 〈미스 줄리〉 16 | 크리스틴 | 백성희장민호극장
 〈로베르토 주코〉 16 | 주코의 엄마 | 명동예술극장
 〈아버지〉 16 | 안느 | 명동예술극장
 〈한국인의 초상〉 16 | 1인 다역 | 소극장 판
 〈토막〉 15 | 명서 처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문제적 인간 연산〉 15 | 인수대비 | 명동예술극장
 〈이영녀〉 15 | 기일이네 | 백성희장민호극장
 〈3월의 눈〉 15 | 명시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노래하는 사일록〉 14 | 포샤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외

수상

2011 제4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여자연기상
 2009 제2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신인연기상
 2008 제45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 박소연 Park So-yeon

홍다리댁 Ms. Hongdari

연극

〈두뇌수술〉 19 | 속향 | 대학로 CJ아지트
 〈영지〉 19 | 효정 | 소극장 판
 〈분노하세요〉 18 | 크레이지 송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페스트〉 18 | 오통판사 부인 | 명동예술극장
 〈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18 | 이선생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청춘예찬〉 16-17 | 여자 | 아트포레스트 아트홀
 〈몽연〉 03-05 | 가면인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외

뮤지컬

〈베리어프리 뮤지컬-아빠가 사라졌다〉 18 | 김선녀 | 공주정명학교 외
 〈태봉국의 왕 궁예〉 17 | 학생 | 철원 화강문화센터
 〈명동로망스〉 15 | 성여인 | 충무아트홀 블랙
 외

하찮고 사소한, 그럼에도 쫄쫄하게 버텨온 이들에 대한 헌사

배선애
드라마투르크

요즘 대구경북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한 듯이 ‘보수’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무언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친연성보다는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그런 지역. 그런데, 실상 경상도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그것은 기가 막힌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동을 포함한 경북 지역은 국채보상운동의 출발지였으며, 한일병합에 맞서 만주와 간도 등에 독립투쟁의 기반을 닦고 기지를 구축했던 인물들을 배출해낸, 말 그대로 ‘반골’의 지역이었다. 식민지 시기 일제가 경북지역의 언론매체를 유난히 늦게 허가한 것만 봐도 반골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반골의 기반은 국가/민족에 위기가 닥쳤을 때 옳은 일을 행해야 한다는 유학자의 실천의식이었다. 옳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유학자의 완고함과 행동력. 조선 성리학의 본거지인 경북은 그런 역사와 기질의 지역이다.

연극을 이야기하는데 지역으로 운을 띄운 것은 ‘경북=보수’라는 오해를 풀어야 <화전가>가 지닌 특별함에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삼식 작가는 <화전가>에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을 설정했는데, 안동이라는 공간과 1950년 4월이라는 시간이 그것이다. ‘6·25 발발 두 달 전의 안동’이 뭐가 특별할까 싶지만 현재의 시각을 조금만 교정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작가가 안동 가일마을의 독립운동가 권



“
작가는 여기에 더
특별함을 엿었다.
단단하게
일상을 버텨낸
여인들을
중심에 둔 것이다.

”

오설 선생의 집안을 모티프로 삼았다고 밝힌 바, 안동은 그냥 안동이 아니라 온 식솔이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특별한 집안의 안동이며, 1950년은 곧 발발할 전쟁을 암시라도 하는 듯 이념과 제도의 갈등과 대립이 일상화된 때였다. 이 정도의 설정이면 얼핏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의 행보를 다루겠거니 손쉽게 짐작할 듯한데, 배삼식 작가는 여기에 더 특별함을 엿었다. 큰일 한다고 호기롭게 나섰으나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남자들의 자리를 지키며 단단하게 일상을 버텨낸 여인들을 중심에 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화전가’이다. 여인들이 화전놀이를 가서 부르던 노래. 무겁고 거대한 담론으로 가득 채워진 시기, 배삼식 작가는 그 틈바구니에서 실제로 삶을 영위할 수 있던 힘에 대해, 그 근원의 곳곳함에 대해 <화전가>로 말하고 있다.

<화전가>는 김씨의 환갑을 맞아 세 딸과 며느리들, 행랑식구들이 모여 화전놀이를 다녀온다는,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면 으레 그러하듯 한 자리에 모인 9명의 여인들은 웃고 울고 싸우고 농치고 통친다. 겉으로 보면 여인들의 수다로 채워진 것 같지만 조금만 속을 들춰보면 우리의 근현대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매력이다. 허투루 주고받는 수다가 씨줄이라면 그들이 살아낸 역사가 날줄로 촘촘하게 엮인 양상이다. 그 시대가 그랬듯 여인들은 가장을 따라, 집안



어른의 명에 따라 간도로, 만주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고, 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생의 중요한 계기들은 모두 남성에 의해 좌우되었던 여인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수다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며,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하소연하지 않는다. 힘든 망명 생활의 기억을 그저 웃음으로 회상하고, 청상과부의 외로움을 화전가를 읊조리면서 달랜다. 딱 하루, 화전놀이라는 카니발만 있으면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여인들, 그래서 그들의 수다는 소박하고 건강하다.

〈화전가〉의 국립극단 창단 70주년 기념작으로서의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작품의 배경과 같은 때에 창단된 국립극단은 곧바로 한국전쟁을 겪으며 역사의 격랑에 휩쓸린다.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시대, 개발의 논리에 모든 것이 수렴되던 시대, 민주화를 향한 투쟁이 일산인 시대 등 우리의 현대사는 거대하고 무거웠다. 죽느냐 사느냐가 현실문제가 되어버린 때, 예술은 사소하고 하찮기 짝이 없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예술문화에 대한 지출부터 줄이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런데, 예술/연극은 사소하고 하찮지만, 생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대담론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버텨내고 고단한 삶을 어떻게든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이다. 김씨네 여인들의 수다와 화전놀이가 간난신고艱難辛苦의 삶을 버티고 견뎌내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었던 것처럼. 70년의 시간을 거쳐 오면서 예술/연극이 필요한 이유와 그 존재 의미, 가치에 대해 여인들의 화전놀이를 은유하고 있으니 배삼식 작가의 명민함이 새삼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성열 연출은 작품의 의미를 충분히 무대에 살려내는 데에 집중했는데, 특히 곧 다가올 전쟁을 모른 채 즐거워하는 여인들의 화전놀이를 더욱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무대 위에 긴장감을 부여하고자 했다. 박상봉 무대디자이너의 제안으로 여인들의 일상을, 아름다운 한때를 앗아갈 전쟁과 불안한 기운들을 무대 뒤편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물로 시각화했으며, 공연 중 간간히 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김영진 의상디자이너의 한복과 박승원 음악감독의 음악, 김혜지 소품디자이너의 소품 등은 1950년 안동 반가의 부녀자들을 사실적이면서도 품격 있게 그려내는 데에 반해 무대는 비사실적으로, 상징성이 강화되어 있어 여인들의 일상과 그것에 깔려 있는 불안함을 대조하는 효과가 크다.

〈화전가〉는 소리가 아름다운 작품이다. 음악이나 음향은 물론이고 배우들의 목소리도 작품의 격을 높였다. 배우들은 1950년대 안동 방언으로 된 대사를 익히기 위해 사투리 선생님께 지도도 받고, 녹음된 대사를 수도 없이 반복해 들으며 낯선 언어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냈다. 동글동글한 안동 방언의 리듬에 얹히는 배우 각자의 목소리가 개성 있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대사들이 소리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듣고만 있어도 귀가 즐겁다. 작품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캐릭터에 독자적인 개성까지 창조해낸 김씨 역의 예수정 선생님, 작품 안과 밖에서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청상과부 고모 권씨 역의 전국향 선생님을 비롯해 능청맞으면서도 우직한 독골할매 역의 김정은 배우, 속내를 알 수 없는 큰며느리 장림덕 역의 이도유재 배우, 매사에 직설적이면서도 주변을 챙기는 큰딸 금실이 역의 문예주 배우, 세상 모든 둘째를 대변하는 질투의 화신 둘째딸 박실이 역의 이유진 배우, 말수는 적지만 집안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은 둘째며느리 영주덕 역의 박윤정 배우, 네 번이나 시집을 갔어도 인생을 심심치 않게 살았다는 궁정 끝판왕 홍다리덕 역의 박소연 배우, 막내라서 귀엽고 막내라서 더 아린 봉아 역의 이다혜 배우, 이렇게 아홉 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화전놀이이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래서 아스라이 사라지는 것이 하냥 섭섭하고 안타까운.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가? 나는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오늘은 기필코 화전놀이를, 아니 좋은 연극을 보러 갈 것이다. 행복한 하루의 기억, 행복한 공연 한 편의 기억으로 충분할 것 같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겨울 추위만큼이나 사회 분위기가 냉랭해졌지만 국립극단 창단 70주년 기념 공연인 〈화전가〉를 통해, 아홉 여인의 화전놀이를 통해, 현실에서도, 마음으로도 봄이 왔음을 관객들이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시절 안동, 고난을 버티는 여인들

이지양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고전문학 전공

안동에서는 물건이나 현상이 반듯하고 귀태 나는 것을 ‘반(班)스럽다’라고 하고, 식자 층답게 견문도 넓고 자기 단속을 잘해서 처신이 바른 사람을 ‘반가(班家)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 유교 문화의 오랜 전통에 대해 애증이 반반 남을 수도 있건만, 생활 어 속에 미움보다는 양반가에 대한 믿음과 호감이 스민 말이 있는 것이다. 그다지 크지도 않은 고장이건만 역사의 고비마다 의롭게 목숨을 내놓고 새 역사의 길을 헤쳐나간 선비들이 많았던 덕분이 아닌가 한다. 가문마다 의병장들, 독립투사들, 신학문을 하러 간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까닭에 안동에서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의 전통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1970년대까지도 안동에서는 제사 장보기라든가 환갑 잔치 장보기 같은 큰 규모의 장보기는 남자 어른들이 했고, 일상적인 소소한 것은 여자들이 장을 봤다. 아낙들은 시장통에서 시아주버님이라도 마주치면 어김없이 15도 쯤 몸을 엇비슷하게 돌려서 고개를 숙여 눈길을 피하면서 “아지뻐 나오셨니까?”하며 수줍고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유교 문화의 내·외 구분하던 관습이 유지된 것이다. 어른과 마주 선다든가, 얼굴이나 눈을 마주치며 쳐다본다는 것은 무례한 일로 여겨졌으니까. 5일 간격으로 열리던 안동 장날, 조금 더 시골에 사는 친척 할매들과 아줌마들이 장에 왔다가 시내에 있는 우리 집에 들러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가 가곤 하셨다. 여자가 장터 국밥집에 앉아 혼자 밥을 사 먹는 일은 그때만 해도 흔치 않았다. 대개는 배가 고파도 참거나 친척 집에 들러 인사도 하고 안부도 나누며 간단히 국수 같은 것을 먹었다. 그럴 때 어른들 곁에 앉아 있으면 양반가의 독립운동 후일담, 집안 형제들이 소신껏 애국하다가 좌익, 우익으로 편이 나뉘어 반공법에 저촉된 이야기, 홀로 남은 여인들이 열녀가 되거나 수절하며 사는 이야기, 후처로 온 작은댁이 종처럼 사는 이야기, 개가한 여자의 기구한 운명과 그 아이들이 겪는 모진 고생 얘기들이 마치 구술로 듣는 인생연속극처럼 펼쳐지곤 했다.



수신제가를 잘한 반가들은 정상동에서 출토된 원이 엄마의 편지처럼 부부간에 서로 깎듯하게 존중하니 금슬도 좋았다. 가장이 집안의 남자들을 이끌고 조국의 위기와 사회적 혼란에 의로운 길을 찾아 대처해나가면, 안에서는 안어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가솔들을 건사해나갔다. 가족 간에 평소애 켜켜이 쌓은 믿음과 존경이 위기가 오면 흔들림 없이 단단히 뭉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타지에서 피난살이 중에 갑자기 낯선 여자가 아이를 업고 본댁을 찾아와도 질투심이나 속상함 대신 남편의 위기를 감지하고 거두어 보살펴준다든가, 남편의 소식이 생사조차 알 수 없이 끊어졌어도 남편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는다든가 하지 않고 모진 고생을 참아가며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것은 아내의 몫이었다. 이육사 시인의 따님인 이육비 여사의

“

안동의 반가 여자들은
그 인고의 세월을
말로는 도저히 다 풀 수 없어
'가사'를 지어 노래하곤 했다.
그것이 '내방 가사'이다.

”

회고담이나 인터뷰, 이상룡 선생의 며느리인 허은 여사가 구술한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민족문제연구소, 2010)에 비교적 소상히 나온다.

전쟁과 시국 혼란이란 것이 개인의 진심과 의지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부자 형제간에 저마다 소신껏 애국 활동을 했을 뿐인데 남과 북이 나눠자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편이 갈리어 적이 되고 고발과 감시를 당하고, 옥고를 치르거나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자손들도 반공법에 적용되어 한동안 취직은 물론 사회적 활동도 자유롭질 못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여 목숨을 바친 대가를 엉뚱하게도 독립 이후에 혹독하게 치른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 독립투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의 국적을 인정하고 가족들의 신원을 보장 하는 것도 1990년이나 가능했으니 그 사이에 수십 년간 속 썩고 원통한 사정을 어찌 다 말로 할까.

안동의 반가 여자들은 그 인고의 세월을 말로는 도저히 다 풀 수 없어 '가사'를 지어 노래하곤 했다. 그것이 '내방 가사'이다. 그 내방 가사들의 종류와 내용은 다채롭지만 대개는 자신이 살아온 내력과 설움타령이거나 화전가처럼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았던 이야기이다. 경상도 순흥의 아전인 임이방의 딸로서 17세에 청상과부가 되어 4번 개가한 자신의 인생 소회를 풀어낸 '덴둥어미화전가'가 유명하지만, 사실 화전가 같은 것을 지어 부르고 기록하는 것은 중언이나 서민들의 문화라기보다는 반가의 내방 문화이다. 남자들이 지은 화전가도 있긴 한데, 여자들의 화전가처럼 맛깔 나거나 재밌질 않다. 여자들이 화전가는 자신의 생활 감정과 속사정이 진솔하게 우려나 '한숨'처럼 토해낸 것이지만, 남자들의 화전가는 '산수유람가'를 짓던 '유산(遊山 기록)'의 자장 속에 '풍광 묘사 중심에다 문장에 대한 의식'이 들어있어서 다소 공식적인 느낌이 난다. 또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신중함'과 '절제'를 강요받는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절절히 드러내지 않는다. 은유적으로 예들러 암시할 뿐이라 구전민요의 표현 같은 절절한 맛이 없다. 여자들의 화전가는 구체적이고 세세하다. 음식 재료 이야기, 만드는 솜씨 이야기, 먹는 맛, 특정 상황의 미묘한 감정 이야기가 쏟아진다. 여자들의 수다에는 생활의 진실이 알알이 박혀 있으니 듣기만 하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다.



옛날 열녀전이나 행장(行狀)이나 묘지명 같은 것을 읽던 시선으로 보면,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장림댁'이다. 그녀는 조선조 후기라면 죽어서 '열녀'가 되었거나 '수절 과부'로 바늘방석 위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조선조에도 친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인품들이 후덕하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낸 과부들이 있긴 하다. 그렇더라도 이런저런 따가운 눈총과 구설수를 벗어날 길은 없었다. 시댁과 친정, 두 가

문의 명예와 경제적 부담과 도덕적 평판에 암묵적으로 등 떠밀려 죽은 경우는 아니지만, 사는 고통이 죽는 고통 못지않았던 것이다. 장림댁은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친정살이로 여생을 살게 될까? 아니면 친정에서 기어이 개가를 시킬까? 조선 시대에는 친정에서 기어이 개가시키려고 할 때, 여자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경우도 많았다. 개가한 여자의 삶이 어떨지 그 신산한 운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장림댁을 친정으로 보내고 싶어 하고 장림댁은 도리어 시댁에 남고 싶어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진심이겠지만 그 누구도 마음이 편치는 못할 것이다. 장림댁의 앞날이 어떨까 의식되기에 그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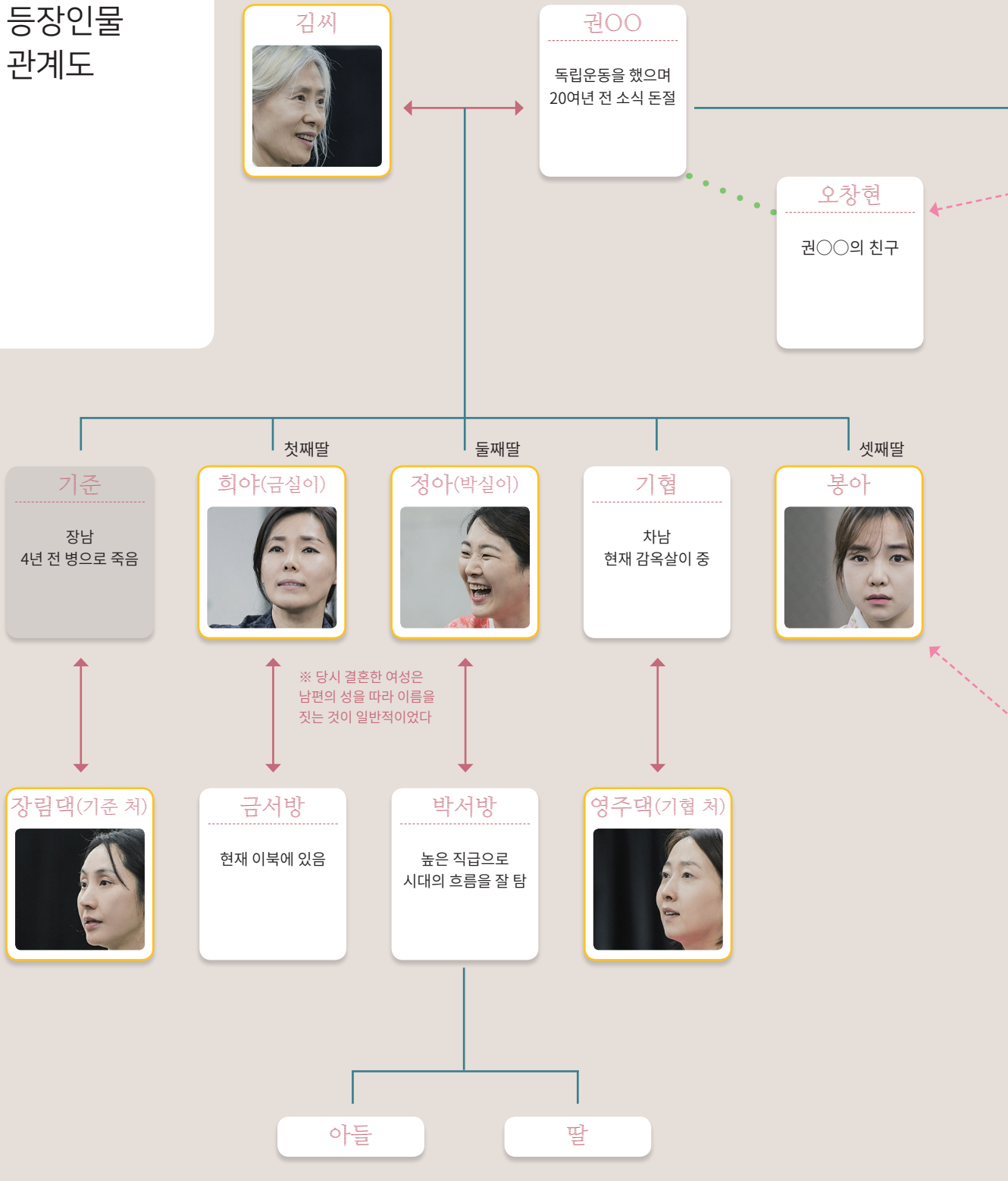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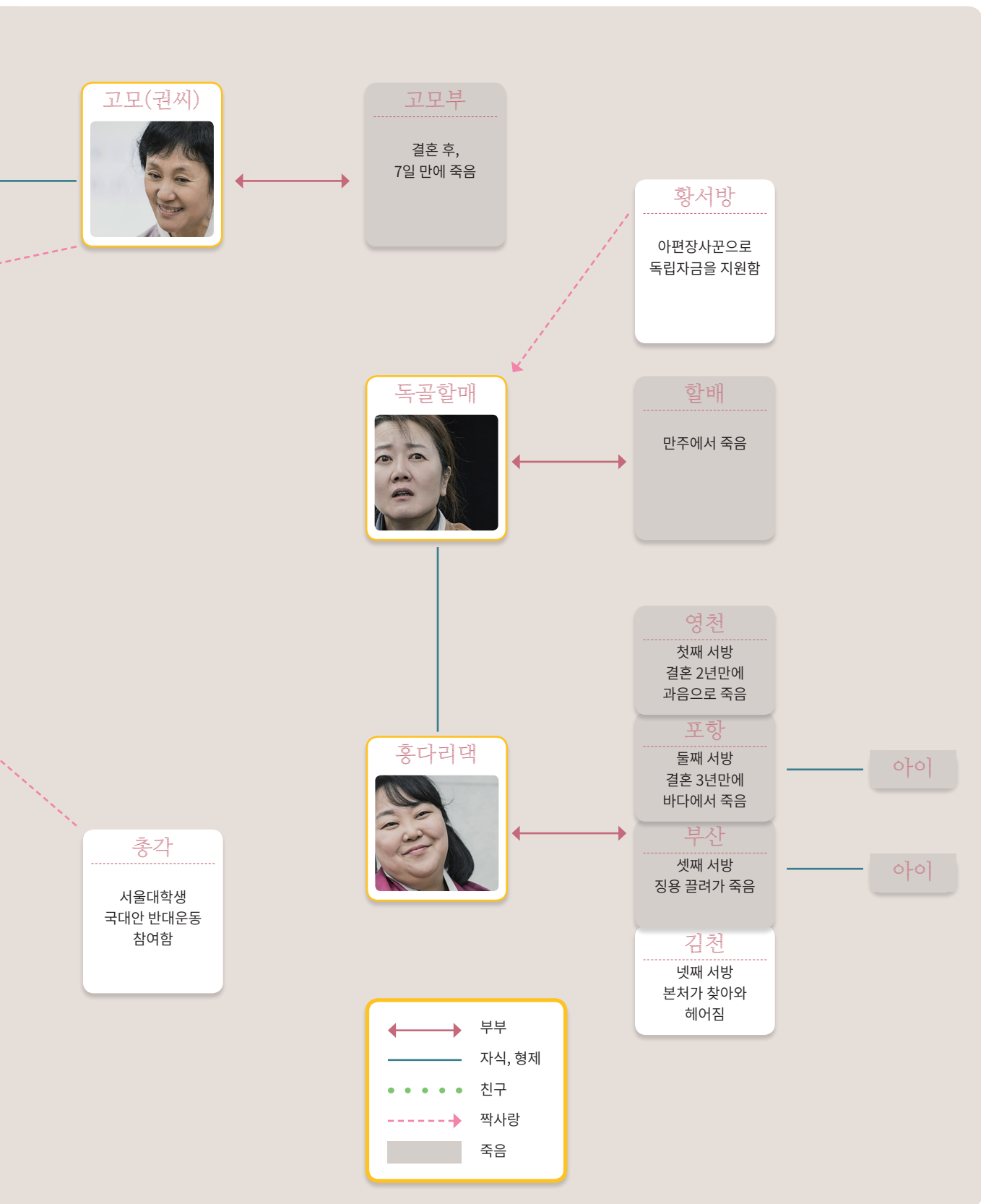
그러면 반가 여자가 아닌 평민 여자로서 여러 번 개가한 홍다리댁은 부도덕한 걸까? 조선시대에는 평민의 개가는 금지 사항이 아니었다. 성종조 이후에 반가 여자들만 개가를 금지했을 뿐. 그런데 그런 양반층 문화와 도덕이 평민에게 적용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개가를 하는 것이 남자를 만나 팔자를 고치는 걸까? 번듯한 시댁도 없고, 돌아갈 친정도 없는 홍다리댁이 혼자서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홍다리댁도 뎡동어미처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 결과가 개가하는 것이었다. 남의 집 일을 하는 하인으로 들어가도 자기 몸뚱이 하나 간수하자면 임자가 있어야 되는 시절이 아닌가. 홍다리댁과 재혼했던 남편들도 남자 혼자서 살기 힘들어 홍다리댁과 힘을 합해 살고자 한 마음은 마찬가지다. 개가한 여자만 남자 덕으로 팔자를 고치는 걸까? 평민으로 온갖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팔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걸까? 생명체가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라면, 도덕이란 건 뭘까?

달실할매 김씨는 의식이 개명된 사람이다. 과부가 된 큰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 놓아 줄 생각을 하고 막내딸 봉아를 이화여전에 진학시키기도 한다. 1950년대, 혹은 그 이전에도 안동에서 아들은 물론 딸도 신학문을 시킨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반가에서는 명백히 상반된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일제 때는 학교에 안 보내는 것은 물론, 일본인 된다고 호적에조차 올리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그런 한편으로 ‘아는 것이 힘’이라 믿고 독립운동 하듯이 해외유학을 보내고 도회지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다. 전답과 소를 팔아서 교육비로 쓴 것이다. 어려서 안동에서 이화여고나 경기여고, 경북여고를 나온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가 봉아와 비슷한 경우였다. 배움에 한이 맺힌 친정 어머니의 결단이거나, 고모나 조모나 누군가의 결정적 지지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동에서 여자의 고학력은 집안 여자들의 단결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봉아는 이화여전을 나와서 아마도 사회에서 활약하며 가문에 새로운 동력이 되었으리라. 그 당시의 고학력 여자들이 친정과 시댁, 양가의 대들보 역할을 했듯이.

전쟁이 나고 사회 혼란이 극심해지면 남자도 여자도 생존이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누군들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의로운 길을 찾아 기꺼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남자, 그 남자를 믿고 온 마음을 다해 가족을 돌보는 여자, 그렇게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집안과 나라를 지켜온 힘이 위대한 것 아닐까. 안동 반가의 여자들이 묵묵히 견뎌온 인고의 내조, 그 지혜와 한숨이 <화전가>에 스며 있다.

등장인물 관계도





작품 속 주요 용어 해설

국대안반대운동 1946년 6월 19일에 미군정청은 경성대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등을 통합하는 국립대학안을 발표하였으며, 8월 23일 국립 서울대학교의 신설을 강행하였다. 이에 좌경 교수와 학생들의 주동 아래 대상학교 학생회는 반대투쟁을 결의하고 산발적인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여 57개의 학교가 동맹휴학에 나섰다.

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한 관변단체로서, 창설 초기에는 가입자 대부분이 전향자였으나 정부가 보도연맹 의무가입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자 좌익과 관련 없는 국민들이 가입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 등을 소집·구금하였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수만 명 이상을 집단학살했다.

건국준비위원회(건준위)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한국의 군정기에 여운형, 안재홍 등을 주축으로 일본으로부터 행정권을 인수받기 위하여 만든 조직. 전국 162개소의 지부를 두어 민족 연합 전선의 성격을 띠었다.

인민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되자 각지의 건준위 지방조직들과 자생적 조직들이 전환되어 조직된 민간자치기구. 치안과 행정 안정에 주력하였으나,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한 이후 변질되어 남한에서는 활동이 축소되었고, 북한에서는 정권 창설의 기반으로 삼았다.

토지개혁 1946년 3월 북조선토지개혁법에 의해 대지주의 땅을 무상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에게 가족수에 따라 무상분배했다. 우호적인 지주들은 일정 토지를 소유하고 고향에서 사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반항하는 지주들은 토지를 몰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켰다.

농지개혁 북한에서는 전면적 토지개혁이 이루어졌으나 남한에서는 단독정부 수립 후 50년 3월에야 공포되어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실시되었다. 유상몰수·유상분배 원칙에 입각하여 농민보다는 지주들에게 유리한 개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개혁효과를 감소시켰다.

몽양 여운형(1886~1947)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1910년 초당의숙을 세워 평등사상과 신학문을 가르쳤으며, 1918년 항일독립운동 단체인 신한청년당을 발기하였다. 1920년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여 한국의 사정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광복을 맞아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1947년 우익 청년에게 암살당했다.

※ 용어해설은
한민족문화대백과,
한국근현대사전,
두산백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안동사투리 해설

시갠다 시킨다

마캐 다, 거의

가시게 가위

메란 없다 형편없다

하매 벌써

맥제 공연히

까꿍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동 ~는지

제구 겨우

아칙 아침

지새 보다 흘겨 보다

짱두 장도리

챙이 키

까불러서 채로 채다

쫓애고 쫓들리고

습다 쉽다

시더이 세더니

어구시 가주고 역세 가지고

죽은디끼 잡채가 죽은 듯이 엮드려서

딘소리 된소리(센소리)

시제마끔 제각각

점바치 점쟁이

그적새 그즉시, 그제야

아레 그제

웃질 윗길

가막소 감옥

재바른 재빠른

가다끔 가끔

이약 이야기, 애기

이태 2년

시 해 3년

질 길

~캉 ~랑

애빳다 말랐다, 수척해졌다

알마는 알면, 알게 되면

허방띠시는 헛발 딛으시는

걸가새 개울가에

해 것

찌끼 찌꺼기

파이다 안좋다, 그르다, 틀렸다

갱개랍 금계랍(키니네를 음차한 것 말

라리아 치료제로, 당시 만능치료제로 알

려짐)

참꽃 진달래꽃

위시개 우스개

원캉 워낙

송년 흥년

비 베

서속죽 조로 만든 죽

질쭉하이 길쭉하니

저를 겨를

낙낙하다 느끼하다

외탁하다 외가를 닮다

※사진은 작품의 배경지인 경북 안동의 가일마을 일대입니다.

가벼운 물,
무거운 물,
죽음의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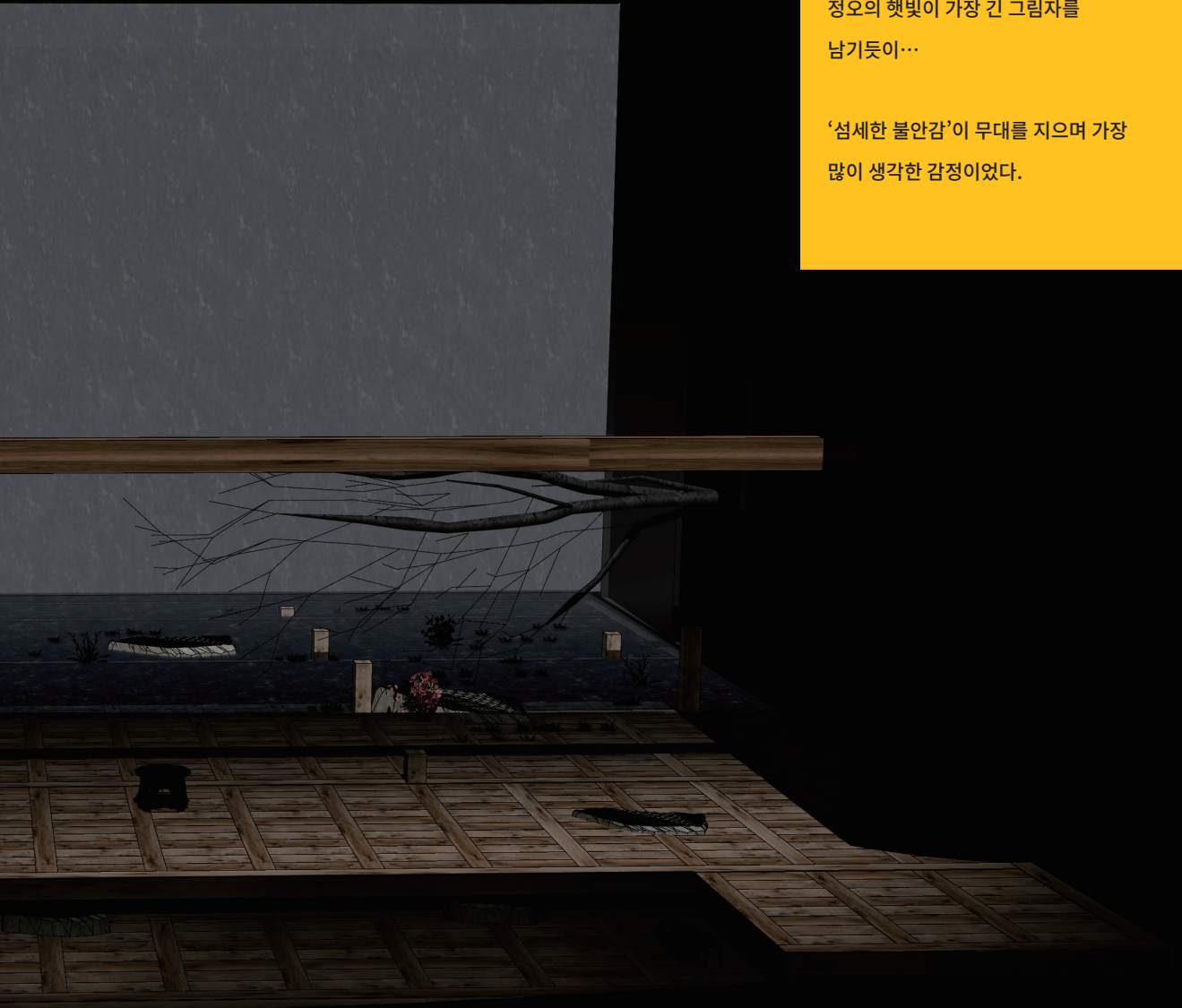
박상봉
무대디자이너



점차 차오르는 물은 잠재적 의미를 가지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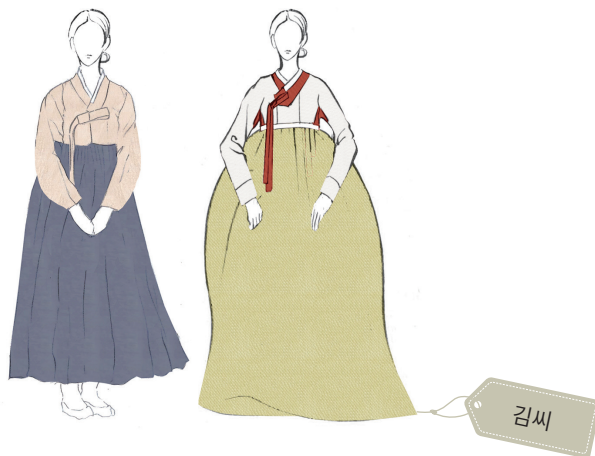
곧 잠겨버릴 이 공간에서 인물들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한순간을 함께 한다.
정오의 햇빛이 가장 긴 그림자를
남기듯이...

‘섬세한 불안감’이 무대를 지으며 가장
많이 생각한 감정이었다.



홍도화 연지곤지 찍은 거 겹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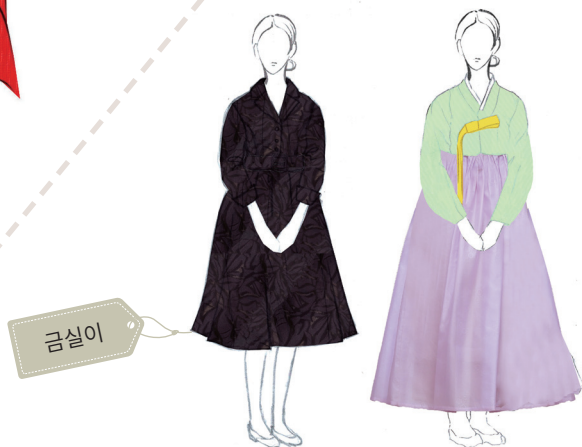
김영진
의상디자이너



다가오는 봄마다 다짐합니다. “올해는 ‘봄’에 꼭 꽃놀이를 가자!”라고. ‘예쁜 옷’을 입고 양산을 쓰고 선글라스도 꼭 준비해서요. 참, 스카프도 잊지 않아야죠! 도시락을 예쁘게 싸고 사생대회처럼 이젤도 놓고, My Dear Friends와 노래도 좀 하고.... 기분이 들뜨면 ‘춤’도 추고요.

9명의 여자들이 화전놀이를 가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 <화전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화전놀이를 가고 싶어서요.

복사꽃, 사과꽃, 산벚나무, 제비꽃, 버드나무, 회화나무. 각각의 인물들을 꽃과 나무와 연계시켜 그들의 개성을 색깔과 디자인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고모(권씨)



박실이



‘환갑’잔치를 대신해서 가는 화전놀이는 더 화려하고 예쁜 옷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라져 가는 ‘환갑’ 잔치를 생각해봤어요. 나의 할머니‘들’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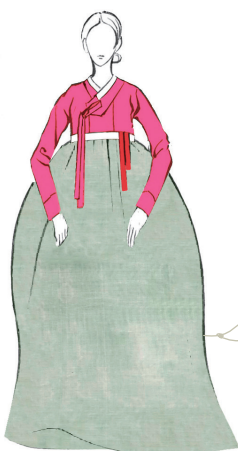
‘환갑’잔치는 지금 많이들 하지 않지만, 그때 '불효자'들은 환갑잔치를 통해서라도 사람됨의 도리를 다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절하면서 ‘울고’, ‘웃고’, ‘업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화전가>와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봉아



영주댁



홍다리댁





스태프

작가—배삼식 Pai Sam-sik

프로필 _ 2페이지

연출—이성열 Lee Sung-yol

프로필 _ 4페이지

드라마투르크—배선애 Bae Seon-ae

연극평론가, 드라마투르크,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편집주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연극 〈그류?그류!〉〈향수〉〈뒷마루가 있는 집〉〈전쟁터의 소풍〉〈고래가 산다〉
〈토일릿피플〉〈잔치〉〈달빛안갯길〉〈소뿔자르고주인오기전에도망가선
생〉〈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거울 속의 은하수〉〈돌아온 박첨지〉외

무대디자인—박상봉 Park Sang-bong

연극 〈날아가 버린 새〉〈와이프〉〈녹천에는 동이 많다〉〈물고기 인간〉〈나는 살
인자입니다〉〈죽고 싶지 않아〉〈맨 골출 소년〉〈비평가〉〈알 앤 제이〉외
오페라 〈베르테르〉〈모차르트와 살리에르〉〈뒤틀린킬러〉외

수상 2018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2018 제3회 한국문화공간상 무대디자인 부분 수상

2017 제53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2016 한국 국제2인극페스티벌 무대미술상

2014 제50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조명디자인—최보윤 Choi Bo-yun

연극 〈날아가 버린 새〉〈알리바이 연대기〉〈콘서트-동의〉〈나는 살인자입니다〉
〈알앤제이〉〈록앤롤〉〈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죽고 싶
지 않아〉〈피와 씨앗〉〈육란연니〉〈나는 나의 아내다〉외

뮤지컬 〈꽃뱀이, 이상〉

음악 〈김광민 콘서트〉〈혁오 콘서트 '23〉〈최백호 40주년 기념 콘서트〉〈이적
소극장 콘서트 '무대'〉〈한승석&정재일 '바리abandoned'〉외

수상 2017 제54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2016 제3회 서울연극인대상 스태프상 조명

2013 제34회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조명

의상디자인—김영진 Kim Young-jin

Tchai kim(차이킴), 차이김영진한복 대표, 크리에이티브CD

연극 〈햄릿〉창극 〈심청가〉판소리 〈노인과 바다〉〈오셀로〉〈이방인의 노래〉

오페라 〈동백꽃아가씨〉영화 〈해어화〉〈조선마술사〉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계룡선녀전〉〈왕은 사랑한다〉

패션쇼 〈CO:LAB 프로젝트 패션쇼〉〈차이킴의 꼭두〉〈헤라 서울패션위크 초청 갈
라쇼〉〈밀라노엑스포 '한국의 날' 한복 패션쇼〉외

전시 〈술이 부작〉〈차이킴의 낭만주의〉〈더 브릴리언트 아트 프로젝트 3-드림스
사이어티전〉〈블루클라보레이션〉〈파리, 일상의 유혹〉외

음악디자인—박승원 Park Seung-won

월드뮤직그룹 공명,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 겸임교수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봄날〉〈유리동물원〉〈도살장의 시간〉〈왕세자
실종 사건〉〈우당탕탕 할머니방〉〈서안화차〉〈햄릿〉〈19 그리고 80〉〈레이
디 멕베스〉

무용 〈시인의 강〉〈K-Arts와 조주현발레단-'Dream like'〉〈서울무용제-'쭉, 네
개의 시선〉〈Re-evolution〉

영화 〈소리꾼〉〈여고괴담3-여우계단〉

음향디자인—정재윤 Jung Jae-yun

연극 〈유리동물원〉〈봄날〉〈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분장디자인—장경숙 Jang Kyoung-suk

연극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물고기 인간〉〈인정투쟁;예술가편〉〈낙타상
자〉〈까마귀의 눈〉〈이갈리아의 딸들〉〈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
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아몬드〉〈거대한 뿌리〉외

소품디자인—김혜지 Kim Hye-ji

연극 〈한여름 밤의 꿈〉〈수정의 밤〉〈미저리〉〈갈릴레이의 생애〉〈R&J〉〈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오슬로〉〈엘렉트라〉〈1984〉〈메디아〉〈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실수연발〉외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신흥무관학교〉〈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구텐버그〉
〈헤드워〉〈벽을 뚫는 남자〉〈블러드 브라더스〉〈미녀는 괴로워〉외

창극 〈산불〉

영상디자인—고동욱 Ko Dong-uk

연극 〈우리별〉〈레라미 프로젝트〉〈산책하는 침략자〉〈그들의 적〉〈별이 빛나는
밤〉

국악극 〈경성 스케이터〉〈살암시민 살아진다〉〈닥터 2478〉

뮤지컬 〈난설〉〈서른조음에(일본공연)〉외

조연출—김세홍 Kim Se-hong

연극 [조연출] 〈오슬로〉〈에어콘 없는 방〉〈벚꽃동산〉〈다락방〉〈헨젤과 그레텔〉
[드라마터그] 〈내 앞의 신호등은 항상 초록불이었다〉〈낮 가리는 집〉
[각색] 〈그냥, 슬기로운 생활〉〈햄릿, 영원히 남을 시〉

조연출—한재호 Han Jae-ho

연극 [배우] 〈비로소 눈을 감다: 배래물결〉〈굿모닝 샌드백〉〈I Seoul you They
Seoul ME〉〈The Theatre keepers〉〈나르는 원더우먼〉〈적산가옥〉〈선
녀씨 이야기〉〈거제도〉〈그 사람이 있었습니다〉〈갯골의 여자들〉외

만드는 사람들

출연

김정은 **독골할매**
문예주 **금실이**
박소연 **홍다리댁**

박윤정 **영주댁**
예수정 **김씨**
이다혜 **봉아**

이도유재 **장림댁**
이유진 **박실이**
전국향 **고모**

스태프

작 **배삼식**
연출 **이성열**

드라마투르크 **배선애**

무대 **박상봉**

조명 **최보윤**

의상 **김영진**

음악 **박승원**

음향 **정재윤**

분장 **장경숙**

소품 **김혜지**

영상 **고동욱**

방언지도 **이원장**

조연출 **김세홍 한재호**

의상디자이너 **보 신원선 이항민**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나해민**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조명오퍼레이터 **김용주**

음향감독·음향오퍼레이터 **장도희**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문성현 김연수 최성관 김영주**

의상진행 **김민주 심새늘**

영상프로그래밍 **김상완**

영상오퍼레이터 **나수경**

무대제작 **은스테이지_대표 김준성**

의상제작 **차이킴_대표 김영진**

소품제작 **인간_대표 김혜지**

영상제작 **고동욱**

조명장비협력 **(주)루스케이프_대표 강성기**

조명디자이너 **보 이명진**

조명 LED 기술지원 **정국락 윤여은 김도현**

조명팀 **이명진 정하영 유승열 임학균 정주영 홍유진**

홍주희 최인수 김소현 이상민 장재영 이지우

음향팀 **박상준 김학준**

소품팀 **이희순**

오케스트레이션 작·편곡 **최성은**

녹음 **몽리뮤직_대표 박승원**

영문자막 번역·검토 **조용경**

영문자막제작 **김건**

영문자막운영 **김수진**

답사장소협조 **수곡고택**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변정원 조영채 이송이**

마케팅 **오지수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김수현 변정원**

이경선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7기 **김가은 김현기 심하린**

이화승 정예림 현석현

메인디자이너 **페이퍼프레스**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봄빔**

홍보사진 **에이전시테오**

홍보의상 디자인·스타일링 **김영진**

연습·공연사진 **나승열**

홍보영상 **602 STUDIO 정기웅**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 프로젝트**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틀어**

옥외광고 **애니애드**

홍보물 인쇄 **인타임**

프로그램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티켓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매표안내원 **김인혜**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안내원

이지은 이지예 정해룡 빈수진 임예은 김능연

박다연 박선준 신혜주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김다빈 유새벽 고정윤 강소현 강유석 채지성

장지영 구도연 김나윤 김소희 안수진 이동건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김철순 최유진**

제작진행 **나수경**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 심재찬 이사 연출가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 김영수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 이민희 인사·복무·복리후생 |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 김시내 비서·유리경영·경영공시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 김수아 회계·세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소영 이정민 최유진 프로듀서 | 박서영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이정현 이승이 조영채 최윤영 홍보 |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변정원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 이경선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빈 김태연 나혜민 무대감독 | 홍영진 경은주 이승수 무대제작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 백혜원 김민주 김세희 연수단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김연경 작품개발·운영 | 권령아 연수단원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조유림 작품개발·출판 | 손은정 청년인턴

2020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강현우

〈파우스트 엔딩〉
〈동양극장 2020〉
〈햄릿〉



2020년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함께합니다.

김보나

〈파우스트 엔딩〉
〈동양극장 2020〉
〈햄릿〉



팔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문예주

〈화전가〉
〈불꽃놀이〉
〈스카팽〉



김예림

〈만선〉
〈동양극장 2020〉
〈햄릿〉



박소연

〈화전가〉
〈불꽃놀이〉
〈햄릿〉



박용우

〈채식주의자〉
〈SWEAT 스위트〉
〈햄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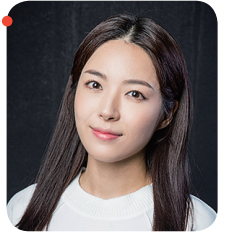
이원준

〈파우스트 엔딩〉
〈동양극장 2020〉
〈사랑의 변주곡〉(가제)



고애리

〈파우스트 엔딩〉
〈동양극장 2020〉
〈사랑의 변주곡〉(가제)



권은혜

〈파우스트 엔딩〉
〈불꽃놀이〉
〈스카팽〉



김명기

〈만선〉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스카팽〉



김세환

〈파우스트 엔딩〉
〈불꽃놀이〉
〈SWEAT 스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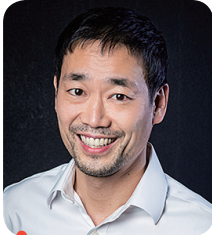
이유진

〈화전가〉
〈불꽃놀이〉
〈스카팽〉



이상홍

〈만선〉
〈불꽃놀이〉
〈햄릿〉



송석근

〈만선〉
〈SWEAT 스위트〉
〈햄릿〉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티켓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세요.



- 도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02-6004-7391



-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 중복 불가, 할인 카드 중복 가능)

02-778-6731



-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행사.임직원할인/매니아데이 중복 불가,
성인 2인 이상 시 사용가능)

02-779-7871



- 햄버거 단품 구매 시, 탄산음료 혹은 아이스커피 M,
따뜻한 커피 S 중 1잔 증정 (행복의 나라 제외)
- 맥카페 구입 시, 동일 제품 1+1 증정

070-7017-6404



- 호텔28 레스토랑 '월향' 20% 할인

02-774-2828

예술新세계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받고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할인(전등급, 4매 한)
- 국립극단 기념품 제공
-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2일 전 유선예약)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좋은친구 연회비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 명동예술극장 기준)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2019. 2.
〈자기 앞의 생〉 관객 의견



극장 주변
제휴 주차장 마련

2019. 7.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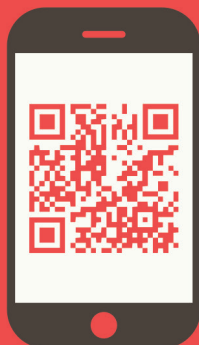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The face of

Theater

연

극

의

얼굴

2020. 6. 25. 부터

명동예술극장

문의 및 예매 국립극단 1644-2003
www.ntck.or.kr

전시 기간 중 일부 회차
퍼포먼스 운영

총감독 여신동
사진작가 정희승
작가 윤성호
큐레이터 남선우

국립극단
70주년
기념전시

2020. 9. 4. - 9. 27. 명동예술극장

연출: 안경모

번역: 고영범

드라마투르그: 최성희

무대: 도현진

조명: 김영빈

의상: 오수현

영상: 박준

음악: 윤현중

음향: 송선희

분장: 백지영

소품: 송미영

무술: 이국호

출연:

강명주, 김세환,

김수현, 박용우,

송석근, 유병훈,

이찬우, 이항나,

최지연

공연기획
무신사아트

주말극단 1544-2003
인터파크 1544-1555
예술24 1544-1839

작. 린노 터지

SWEAT 스웨트

땀, 힘겨운 노동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산그늘은 물 건네고 까막까치 자려 드네
각기 귀가하리로다 언제 다시 놀아볼고
꽃 없이는 재미 없네 맹년 삼월 놀아보세……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dong-gil,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